

롯데케미칼, ‘석화’ 사업재편 속도 고부가 제품 등 수익 중심 체질전환

석화업황 부진… 수익 확보 사활
여수 사업장 등 비용구조 재정비
업계 “근본적인 구조전환 쉽지 않아”

롯데케미칼이 장기간 이어진 실적 부진에서 벗어나기 위해 구조조정과 사업 재편을 축으로 한 고강도 체질 개선에 사활을 걸고 있다. 석유화학 업황 회복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비용 구조를 손질하고 수익성 중심의 사업 전환을 통해 적자 폭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케미칼은 지난해 4분기에도 2055억원 규모의 영업 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말 비수기와 중국발 공급 과잉이 겹치며 주요 석유화학 제품 시황이 악세를 보인 가운데 수익성 압박이 이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연간 기준 영업손실 역시 7098억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석유화학 시장은 공급 과잉과 수요 회복 지연이 구조적으로 이어

지고 있다. 특히 중국이 지난 10여년간 에틸렌 생산능력을 대폭 확대하면서 범용 석유화학 제품 중심의 수익 구조가 지속적으로 압박을 받아왔다. 석유화학 비중이 높은 사업 포트폴리오를 유지하고 있는 롯데케미칼은 업황 흐름에 따라 실적 변동성이 크게 나타난다는 평가를 받는다. 시황이 개선될 경우 수익성이 확대될 수 있지만 업황이 악화되면 손실 규모 역시 빠르게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수익 구조가 이어지면서 롯데케미칼은 단기적인 상황 반등을 기대하기보다 비용 구조와 사업 체질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대산과 여수 단지를 중심으로 중복 설비를 통합·조정하고 설비 효율화를 추진해 고정비 부담을 낮추는 데 주력하고 있다. 대산 사업장은 물적분할을 통해 HD현대케미칼과 합병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설비 구조 조정에 착수했고, 여수 사업장 역시 구조조정과 비용 절감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동시에 제품 포트폴리오 전환에도 속

도를 내고 있다. 범용 석유화학 제품 비중을 낮추고 고부가 제품 비중을 60% 이상으로 끌어올려 석유화학 중심의 사업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계획이다.

해외 사업에서는 말레이시아 석유화학 프로젝트가 중장기 실적 흐름에 영향을 미칠 핵심 사업으로 거론된다. 이른바 ‘라인프로젝트’로 불리는 인도네시아 대형 석유화학 단지 사업으로, 약 5조원을 투입해 연간 에틸렌 100만톤과 프로필렌 52만톤, 폴리프로필렌 35만톤 등을 생산한다. 해당 프로젝트가 안정적인 가동 단계에 진입할 경우 중장기 수익성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구조조정과 비용 절감이 반영될 경우 손실 폭이 일부 완화될 여지는 있다”면서도 “다만 석유화학 산업 전반이 아직 구조조정의 초입 단계에 머물러 있는 만큼, 단기간에 사업 여건이 뚜렷하게 개선되거나 근본적인 수익 구조 전환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르노코리아가 13일 그랜드 워커히에서 공개한 ‘필랑트’

/르노코리아

르노코리아, 오로라 프로젝트 ‘필랑트’ 공개

CUV 형태 준대형 모델… 3월 출시

르노코리아가 13일 오로라 프로젝트의 두 번째 모델 ‘필랑트’(FILANTE)를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필랑트는 쿠펜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의 특성을 담은 크로스오버(CUV) 형태의 준대형급 모델로 ‘그랑 콜레오스’의 인기를 이어갈 차세대 모델이다. 부산 공장에서 생산해 3월 국내 출시를 앞두고 있으며 현대차 쏘타페, 기아 쏘렌토와 치열한 경쟁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르노코리아는 이날 오전 서울 광진구 그랜드 워커히에서 필랑트 월드 프리미어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파브리스 캄볼리브 르노 브랜드 최고경영자(CEO)와 르노그룹 디자인 총괄 로렌스 반 덴 아커 부회장, 니콜라 파리 르노코리아 대표이사 사장, 최성규 르노코리아 연구소장 등이 참석했다.

캄볼리브 CEO는 “르노그룹은 2027

년까지 유럽 외 지역 판매량의 3분의 1을 하이브리드 또는 전기차로 판매할 것”이라면서 “한국은 디자인·엔지니어링·생산이 모두 이뤄지는 르노의 글로벌 목표를 실현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필랑트는 눈에 띄는 디자인과 테크라운지 콘셉트의 실내 공간, 개선한 하이브리드 이-테크(E-Tech) 파워트레인 등을 적용한 게 특징이다.

르노코리아는 앞서 출시한 그랑 콜레오스에서 선보인 직병렬 듀얼 모터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했다고 설명했다. 하이브리드 E-Tech 파워트레인은 100kW의 구동 모터 및 60kW의 시동 모터가 기술된 1.5L 터보 직분사 엔진과 만나 250마력의 시스템 최고출력을 발휘한다. 엔진의 최대 토크는 25.5kg.m다. 복합 기준 공인 연비는 L당 15.1km로 주행 거리는 800km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양성운 기자

LS “에식스솔루션즈 상장, 생존을 위한 투자”

쪼개기 논란 관련 ‘재상장’ 입장 밝혀
“수주물량 대응 위해 대규모 투자 필요”

LS그룹이 자회사에식스솔루션즈상장 추진에 대한 논란에 대해 “이번 상장은 ‘쪼개기 상장’이 아니라 해외 우량자산을 국내 자본시장에 다시 편입하는 ‘재상장’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전력 슈퍼사이클에 대응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현시점에서 기업공개(IPO) 외에 대안이 없다고 설명했다.

LS는 13일 에식스솔루션즈 상장과 관련한 입장 자료를 통해 이번 상장이 기존 핵심 사업을 분리해 상장하는 물적분할 방식이 아니라 과거 인수한 해외자산을 한국 자본시장에 편입시켜 시장평가를 받는 ‘재상장’ 또는 ‘인바운드상

장’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해외 우량기업의 국내 상장을 유도하려는 한국거래소의 자본시장 글로벌화 정책과도 방향을 같이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LS는 이번 상장이 단순한 성장 전략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투자라고 설명했다. 에식스솔루션즈는 전기차 구동모터용 고효율 특수 권선과 변압기용 특수 권선(CTC)을 주력으로 생산하며 테슬라, 토요타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다. 최근 AI 데이터센터 확산과 미국 내 노후 변압기 교체 수요가 맞물리면서 CTC 주문이 빠르게 늘고 있으며, 일부 품목은 납기까지 4~5년 이상 소요되는 상황이다.

LS는 늘어나는 수주물량에 대응하기 위해 특수 권선 제조시설 확충이 불가피하며 이를 위해 5000억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차입 확대에 따른 재무구조 악화보다는 IPO를 통한 자금 조달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판단이다. 에식스솔루션즈는 상장을 통해 조달한 5000억원을 미국 내 설비 투자에 투입할 계획이다. 계획대로 투자가 진행될 경우 2030년까지 기업가치가 3배 이상 성장할 수 있으며 이는 모회사인 LS의 기업가치 제고로도 이어지는 ‘가치증대형’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LS는 “과거 LS 주가가 저평가받은 주요 원인은 자회사들에 대한 과도한 지급보증과 자금 지원 부담이었다”며 “이번 IPO는 ‘모회사의존 고리’를 끊는 결단으로, 에식스솔루션즈가 자체 주식을 발행해 자본을 조달하면 LS는 추가적인 지급보증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원관희 기자 wkh@

LG이노텍, 광주사업장 증축… 1000억 투입

차량용 반도체 신사업 박차

LG이노텍이 차량용 반도체 신사업 확대를 위해 광주사업장 증축에 나선다.

LG이노텍은 광주광역시와 공장 증축을 위한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투자규모는 약 1000억원으로, LG이노텍은 이번 투자금을 신사업 확대를 위한 광주사업장 증축에 활용할 계획이다. 신규 공장은 오는 12월 완공 예정으로, 차량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모듈 생산라인이 추가로 들어선다. 완공 후 LG이노텍 광주사업장 전체 연면적은 총 9만7000㎡에 이르게 된다.

차량 AP모듈은 LG이노텍이 지난해

첫 시동을 건 신사업 분야다. 이 제품은 컴퓨터의 중앙처리장치(CPU)처럼 차량의 두뇌 역할을 담당하는 핵심 부품이다. 차량 내부에 장착돼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 디지털 콕핏과 같은 자동차 전자 시스템을 통합 제어하는데 쓰인다.

문혁수 LG이노텍 사장은 “광주사업장은 1985년 준공 이후 LG이노텍의 성장동력인 모빌리티솔루션사업의 ‘마더팩토리’로서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며 “핵심사업의 기반이 되는 전략적 요충지인 만큼, 광주 지역사회 및 협력회사들과 동반 성장하며 고객을 위한 탁월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현정 기자 hyeon@

현대차그룹, 박민우 AVP 본부장·포티투닷 대표 선임

엔비디아 출신… 자율주행 분야 전문가

현대자동차그룹이 SDV(소프트웨어 중심 차량) 및 자율주행 기반 차량 기술 경쟁력 강화 위해 세계적 기술 인재를 영입했다.

현대차그룹은 AVP본부장 겸 포티투닷 대표에 엔비디아 출신 박민우 사장(사진)을 영입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영입을 통해 현대차그룹은 SDV와 자율주행 전 영역에서 차량 소프트웨어 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가속화하고, 자율주행 및 모빌리티 기술 통합, SDV 전략 실행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신임 박민우 사장은 테슬라와 엔비디아 등 글로벌 기업에서 컴퓨터 비전 기반 자율주행 분야 기술의 연구·개발부터, 양산과 상용화까지 전 과정을 경험한 세계적인 기술 리더이다.

박민우 사장은 최근까지 엔비디아에서 부사장으로 재직하며, 자율주행 인지 기술을 개발하는 조직에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의 양산 및 상용화를 주도했다.

특히 인지 및 센서 융합 기술을 전담

하는 조직을 이끌며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과 진행한 양산 프로젝트를 통해 엔비디아 자율주행 플랫폼의 차량 적용을 성공적으로 추진, 연구 단계였던 기술을 실제 차량에 적용 가능한 양산 기술로 전환하는 데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 이에 따라 향후 현대차그룹과 엔비디아의 협력 관계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박민우 사장은 “현대차그룹이 기술과 사람이 함께 다음 세대의 지능형 모빌리티를 이끌어 가고, 세계 혁신의 기준이 되는데 기여하겠다”고 비전을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

태광그룹, 코스메틱 전문법인 ‘실’ 설립

김진숙 대표 선임… 뷰티 사업 박차

태광그룹이 코스메틱 전문법인 ‘실(SIL)’을 설립하고 K-뷰티 신사업에 시동을 걸었다. 섬유와 화학 중심이던 태광이 소비자 접점 사업으로 체질 개선에 속도를 낸다.

태광그룹은 13일 독자적 뷰티 브랜드 전개를 위한 코스메틱 전문법인 SIL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실은 태광산업이 100% 출자한 자회사로, 글로벌 컨설팅 그룹 커니(Kearney)와 삼성전자 등을 거친 신사업 전문가 김진숙 대표가 초대

대표로 선임됐다.

이번 법인 설립은 태광산업이 1조 5000억원 규모로 추진 중인 신사업 투자계획의 일환이다. 태광산업은 올해 2월 인수가 마무리되는 애경산업과 실을 양 축으로 글로벌 K-뷰티 시장의 공략을 시작으로 고객 중심의 B2C 사업 구조 전환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진숙 대표는 “콘텐츠와 데이터를 통해 고객 니즈를 파악하고 이를 빠르게 제품과 마케팅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변화하는 K뷰티 시장에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